



조곡리공소(신례원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3년

연중 제14주일 | 2024년 7월 7일(나해)

제1독서 예제 2,2-5

화답송

-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제2독서 2코린 12,7-1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마르 6,1-6

영성체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신학교 지원반 여름피정
7월 29일(월)~31일(수)
수리치골 피정의 집



에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는 마음



노승환 요셉
사회복지국장

어느 날부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도 느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 1년 이상 이어지던 중 어느 성당에서, 예전에 알던 의사분을 만나게 되었다. 증상을 설명하자 그분은 그것이 '까봐병'이라고 알려주었다. 죽을까 봐, 잘못될까 봐.... 빙긋 웃으며 나에게 한마디했다. “신부님, 염려마세요. 안 죽어요.”

바로 그 순간, 1년 이상 나를 괴롭히던 호흡곤란이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 아니 이렇게 믿었다. ‘하느님께서 수많은 신자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셨다.’

어떤 사람은 그 치유가 의사의 유능함 때문이라는 식으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쩔 것이냐,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다고 내가 믿겠다는데...

회당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들은 이들도 기적이란 말을 쓴다.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그들이 쓴 기적의 의미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믿어 예수님께서 하

시는 일들을 진정한 의미의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사실 그것은 기적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고 한 복음의 증언은 섬뜩하다. 사실상 행하신 기적이 그들에게는 기적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는 것은 ‘경악’에 가깝다.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긴 경악, 주려 해도 받지 않는 자녀들을 보고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사실 기적은 외적 현상이기에 앞서 믿음의 시야로 보이는 그 무엇, 하느님의 은총과 내 믿음이 합쳐져 일어나는, 나에게 열리고 보이는 주님의 순간이기에 똑같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기적이라 부르는 주님의 순간을 늘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의 순간을 ‘보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솔로몬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청했듯이 매일의 일상에서 구원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순간들을 ‘보는 마음’, 그것을 청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순간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나의 눈을 흐리는 불신과 나의 마음을 옥죄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는 기어이 주님의 순간을 보리라.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뵈고야 말리라.”

나는 오늘도 주님의 순간을 만끽하며 막힘없는 감사의 숨을 쉰다.



바울이
(1077)
유판식 토마스

1948년 11월 12일 주한 교황순찰사 패트릭 번 몬시뇰이 서울에서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서한

포교성성이 라리보 주교를 위해 일반우편으로 보낸 특별권한서가 거의 6개월 넘도록 한국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1948년 11월 2일 주한 교황 순찰사 패트릭 번 몬시뇰은 포교성성 장관에게 충청남도의 지목구 서리 라리보 주교를 위한 권한 요청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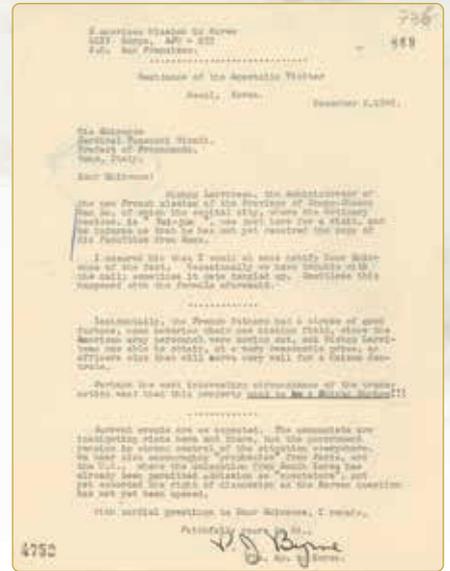
“직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도가 ‘대전’인, 충청남도의 새로운 프랑스 선교지의 관리자, 라리보 주교는 단지 방문을 위해 이곳에 왔으며, 그는 로마에서 그의 특별권한서 사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저에게 알립니다.

저는 즉시 포교성성 장관 예하께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편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엉키기도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위에서 말한 공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덧붙여서 프랑스 신부들은 미군 병사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새로운 선교지에 들어설 때 큰 행운을 얻었고, 라리보 주교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센터 하우스를 위해 매우 잘 봉사할 장교 클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래에서 가장 흥미로운 상황은 이 부동산이 예전에 신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청서는 1948년 11월 25일 포교성성에서 수신하였고, 같은 달 27일에 포교성성 장관과 차관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이 특별권한서가 라리보 주교에게

까지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아직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은 한국 내 국제우편물에 대한 취급 문제와 더불어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소실의 위험에서 특별권한서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한 교황순찰사 패트릭 번 몬시뇰이 일본의 옛 “신사”를 이제는 천주교 건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교의 승리로 생각했다. 번 몬시뇰은 일제강점기 시기 평양 초대지목구장, 그리고 초대 교토지목구장으로 있었기에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일제의 패망 이후, 한국에서 일제의 잔재 중 하나였던 신사를 라리보 주교가 사들여 선교센터 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포교성성 장관에게까지 보고하였다.



인류복음화서 역사문서고
Nuova Serie, vol. 1649(1947-1949),
rubr. 36-3, prot. 4752/48, f. 896r.

●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20. 하루, 이틀, 일주일...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제로 웨이스트)

미국의 환경활동가 비 존슨은 쓰레기 없는 삶(제로 웨이스트)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5R)을 제시했습니다. 거절하기(Refuse),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 썩히기(Rot)입니다. 숨만 쉬어도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 같은 현대 도시의 삶에서 제로 웨이스트는 큰 도전처럼 생각됩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는 상황이라 개인의 실천만으로 과연 쓰레기 없는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우려되기도 하구요. 하지만 “덜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줄이며 현명하게 소비하려는 가정들의 노력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중략)... 따라서 정량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당장 대단히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 깊숙한 곳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71항). 그러니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파도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세상이 무한한 사랑을 노력한다면, 어찌 그 세상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느님을 찬미하여라」 65항)

4. 주일미사에 대해서(1)

부득이하게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가톨릭 신자는 주일미사를 봉헌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일미사가 신자들의 합당한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이 주일미사 참례 의무는 십계명 중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세 번째 계명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를 설명하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축일에 거룩한 전례에 참여>할 의무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가능한 한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를 하고 성체를 모실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 축일에, 나아가 더 자주, 매일이라도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89항).”

가톨릭 신자에게 주일미사 참례는 기본이면서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미사 참례를 하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이 관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 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1245조).”

가톨릭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통해 “대송”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대송은 “주일이나 교회법이 정한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송을 어떻게 바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방법은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각 교구에서는 “방송미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대송의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사 참례가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합당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했을 때, “대송”을 교회법상 정해진 의무를 대신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심을 통해 섬세하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송은 어렵고 부득이한 환경에 놓인 이들이 교회법에 걸려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합시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성지들 걷다_해미순교자국제성지(1)

1. 순교터이면서 묘가 함께 있는 성지

영장 겸 토포사를 겸한 해미 현감은 해미·덕산·면천·예산·당진 등 내포 지역 13개 고을에 대한 치안과 사법을 담당했다. 이런 연유로 1799년부터 1868년까지 해미에서 수많은 무명 순교자가 나왔다. 주로 내포 지역에서 해미읍성 관아로 끌려온 신자들은 현감이 근무하는 동헌 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옥·남문 안 장터·서문 밖·여섯 골 등에서 교수·매질·자리개질·생매장·참수 등을 당해 순교했다. 이후 그들의 시신은 여섯골에 버려지고 매장되었다. 1935년 바로(Barraux) 신부의 조사와 발굴로 유해와 성물이 수습된 생매장터이자 참수터이며 순교자들의 시신이 유기·매장된 터인 여섯골을 중심으로 성역화가 추진되어 2003년 일단락되었다. 해미순교자국제성지는 성지로는 드물게 생매장 순교터와 묘가 함께 있는 곳으로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 묵상할 수 있다. | 글·그림 해미순교자국제성지



해미순교자국제성지 전경



해미읍성 서문 밖

전담사목

청년 떼제기도

- 때 : 7.10(수) 19:3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함께 기도할 청년 누구나
- 내용 : 떼제기도, 나눔
- 진행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제 75차 교구 성령묵상회

- 때·곳 : 8.17(토)~18(주일) 1박2일, 새얼센터
- 참가비 : 10만원 (숙박 : 12만원)
- 접수 : 8.13(화)까지 선착순 60명 마감 (숙박 선착순 40명 2만원 추가)
- 주제 : 무엇을 원하느냐(마태 20,21)
- 접수방법 : 방문 및 팩스
e-mail접수(tjcrs@hanmail.net)
- 계좌 : 농협 351-1272-6090-53
천주교대전교구성령쇄신봉사회
- 홈페이지 참조 : www.crs.or.kr
- 문의 : 대전교구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성모병원 전례봉사자 모집

- 대상 : 원목미사 전례봉사자(독서, 해설)
- 자격 : 만 25세~65세 가톨릭 신자
- 활동시간 : 매주 토 10:00~12:00
- 모집기간 : 7월 말까지
- 문의 : 병원 상지관 5층 자원봉사실 (042)220-9417

미사 기쁨의 피정

- 신자로서 보다 능동적인 미사봉헌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
- 때 : 8.24(토) 14:30~25(주일) 16:00
- 피정비 : 1인 9만원 (2인 1실 기준)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문의 : 010-8848-5690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 문의 : (042)622-7018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 옆 상가 2층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월요일 19:30, 원신홍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미사

- 때 : 매주 둘째주 토 09:20 철락목주기도, 10:30 미사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6408-6562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곳 : 7.11(목) 15:00, 주교좌 대흥동성당
- 미사집전 : 정우석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4116-0140

마리아 사제운동(MSM)체나콜로 월례미사

- 때 : 7.13(토) 10:00 체나콜로, 미사
- 곳 : 덕산순교성지(덕산면 읍내리 363-2)
- 문의 : 010-5184-8696

대전 가톨릭 가스펠 음악선교단

'더워드' 단원모집

- 파트 : 악기, 남자보컬 / 소정의 오디션 있음
- 자격 : 20~40세 천주교 신자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6744-7482 (김현주 시몬)

대전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면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수필 형식으로, 원고지 6장 또는 A4(10pt) 용지 25줄 이내로 원고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채택된 원고는 각각 9월 29일, 12월 29일 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 지면에 실리게 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대전교구청 홍보국
이메일 : tjubo@djca.kr / 문의 : (044)270-3041 홍보국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a.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 · 곳	대상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미사	7.17(수) 10:00,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 7.18(목) 10:00, 전민동성당 7.24(수) 10:00, 모산성당 7.26(금) 10:00, 천안용곡동성당	임산부, 영유아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7.18(목) 19:30, 원신홍동성당 7.25(목) 10:00, 천안신부동성당	모든 신자
혼인교리	7.20(토) 비대면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p>이화병원 이중민(카타리나) 김지연(아베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영상진단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p>	<p>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p>	<p>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p>
<p>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p>	<p>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p>	<p>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어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p>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라피, 이콘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프랑스성모발현지(공식인준6곳)순례 8.23~9.3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새로운 복음화학교 피정(ICPE)

- 때 : 8.13(화)~18(주일)
- 곳 : 수원교구 영성 교육원
- 대상 : 모든 신자(자녀동반가능)
- 문의 : 010-5531-1008

마리아 학교 9월학기 온라인 수강자 모집

- 때 : 9.5~2025.2.16 매주 목, 20:00~22:00 (6개월 과정)
- 내용 :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움, 33일 봉헌기도
- 신청 : 010-2724-4819 폰으로 신청함 서울 마리아 학교

2024 모여라 가톨릭 영상 공모전 안내

- 주제 : 신앙캠프 뭐하니?(주일학교 여름 신앙 학교와 관련된 자유 영상)
- 참가자격 : 본당, 단체, 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 접수 : 8.1(목)~9.1(주일)
- 방법 : 신청서 작성 & <https://mocatholic.or.kr> 영상등록
- 문의 :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가톨릭팀 (031)8019-5403

상담의 이해와 기술

- 때 : 8.5(월)~9.9(월) (19:30~21:30) 6주간
- 곳 : 가톨릭문화회관 401호(대흥동성당)
- 진행방식 : 대면, 비대면(Zoom 동시 진행)
- 신청 :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도림동교육센터 가을 학기 신입생 모집

- 대상 : 재학 중인 남학생
- 홈페이지 : dorimdongcenter.org
- 내용 : 가을 학기 기숙사 학생 모집, 가족과 공부 분위기, 여러 교육 프로젝트(문화, 봉사활동, 문학, 운동, 국제교류 등), 개인방+개인화장실
- 운영영성지도 :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 /오푸스데이
- 문의 : 010-2554-1507 dorimdongcenter@gmail.com

제2회 가톨릭찬양사도협회 찬양연수

- 때 : 8.24(토) 09:30~25(주일) 13:00
- 곳 : 대전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 대상 : 전문성을 높이려는 찬양 봉사자
- 신청 : 네이버 카페 '가톨릭찬양사도협회' 7.8(월)~19(금) 선착순 마감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 3박4일
- 문의 : 010-3645-9028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 / 9월 개강

-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 / 최화선 박사
- 성경대학 :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2 / 송봉모 신부
- 죽음수업 / 홍기령 교수
-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 번째 길 / 최지원 수녀
- 구약성경 아카데미 : 구약성경의 기초 / 주원준 박사
- 마르코의 예수이야기 / 박상훈 신부
- 삶의 의미 :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 / 김민철 신부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수도회 및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수녀)

- 2박3일 : 8.2(금)~4(주일)
- 8박9일 : 8.5(월)~13(화)
- 곳 :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신청 : (031)321-9054, 010-4154-0885 예수마음선교수녀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효소단식 : 7.11(목)~14(주일), 8.9(금)~12(월)
- 성경완독 : 7.26(금)~8.3(토), 8.23(금)~31(토)
-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 8.15(목)~17(토)
- 문의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바로로말과 함께하는 피정에 초대합니다

- 때 : 7.13(토)~14(주일), 2030 미혼 여성 8.3(토)~4(주일), 여중고생(14~19세)
- 곳 : 여주 성바로로말수도회 사도의 모후 집
- 문의 : 010-7251-1908 김 테레사 수녀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을 모집중입니다.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성소부 문의 : 010-5195-3217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 때 : 8.2(금) 14:00~4(주일) 16:00
- 대상 : 중학생이상 미혼남녀
- 곳 :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회비 : 10만원
- 문의 : 010-5490-5345 (myungkkot@daum.net)

청주조성성령회관 성령 세미나

- 때 : 매주(금)20:00~(토)02:00
- 강사 : 김경희 루시아 수녀, 최황진 라파엘 신부
- 진행 : 고영민 안드레아(찬양부)
- 곳 : 청주 조성성령회관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 일반부 : 8.6(화)~8(목), 경남 산청 성심원
- 중고등부 : 8.2(금)~4(주일), 경남 산청 성심원
- 문의 :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 선착순 모집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 생태순례(우도섬포함) : 7.25~28, 8.2~5 8.8~10, 8.14~17, 8.21~23
- 성지순례(추라도포함) : 9.7~10, 10.7~10 11.3~6, 11.18~21, 11.24~27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우도포함자연순례 : 7.20~22, 7.25~28, 8.1~4 8.6~8, 8.10~13, 8.24~26
- 추라도포함 : 9.11~14, 10.5~8, 10.27~30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한기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40°C** 총 모금 400,579,504원 | [6.15~21 모금액] 5,695,002원 본당 4,003,702원 / 개인·기관·행사 1,691,300원

<p>미카엘 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8/18 베트남 하노이 5일 8/26 발칸·메주고리에 12일 9/2 베트남 다낭 5일 10/28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대전·청주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정성훈 미카엘 010-8650-9690</p>	<p>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p>	<p>보나투어 성지순례 8/16 말레이시아 페낭&말라카 순례 6일 225만원 9/23, 10/21 마카오 도보순례 4일 139만원 1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T. (02)732-4578 보나투어를 검색해 보세요</p>
<p>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p>	<p>킴벨 피부과병원 (가톨릭피부과)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p>	<p>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p>

사과에게 사과를 하다

사과 값이 비싸서 사과 먹어 본 지가 한참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트에 갔더니 사과를 무척싼 값에 판매하고 있어서 한걸음에 사과가 진열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잔뜩 쌓여 있는 사과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허겁지겁 사과 한 꾸러미를 집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비닐봉지 한가운데 큰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까지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울퉁불퉁 못난이 과일의 반전 매력”

영화 포스터에서나 볼 수 있을 홍보 문구를 사과 봉지 위에서 보게 되니, 어느새 사과 맛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은근한 기대와 함께 결국 못난이 사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얼른 사과 한 개를 꺼내 먹어 보니, ‘반전 매력’이라는 말이 과대광고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아삭아삭한 데다 달콤하기까지 그 맛이 일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과 한 개를 더 꺼내서 먹다 보니 불현듯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전 매력이라니... 도대체 뭐가 ‘반전’이라는 걸까?”

볼품없는 과일은 당연히 그 맛 또한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을 ‘반전’을 말하는 것일 텐데, 웬지 그 ‘반전’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일마저도 예쁜 과일과 못난이 과일로 나누는 일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비나 벌, 그리고 새들이 과일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간의 그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합니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생김새를 먼저 보고 맛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나비나 새들이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새와 나비에게 ‘반전’은 없습니다. 편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간의 삶에는 반전이 빈번합니다. 그만큼 편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사과들에게 갑자기 사과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저 잘 익은 사과일 뿐인데 ‘못난이’라 부르고, 함부로 ‘반전 매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에 대하여 사과해 봅니다.

“모든 생명에 반전 없는 매력을 주신 주님, 그 생명의 신비 앞에 다시 겸손을 깨닫습니다.”

이충무 바로로 극작가, 건양대학교수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요나성당&연수원은 대천해수욕장에 자리잡고 있으며 교우분들의 쉼을 위한 객실을 운영합니다. 개인, 가족모임, 사목&레지오 단체 환영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모든 쉼을 축복합니다.

미 | 토요일미사 : 오후 5시
사 | 주일미사 : 오전 10시
안 | 화요일, 목요일 : 저녁 7시
내 | 수요일, 금요일 : 오전 10시

12인실 온돌형	1인용 매트리스 12개 비치
10인실 온돌형	1인용 매트리스 10개 비치
4인실 침대형	더블침대 2개 (1침대 2인 사용)
4인실 A 타입	더블침대 1개, 1인용 매트리스 2개 비치 (1침대 2인 사용, 2인 1인용 매트리스 사용)
4인실 B 타입	온돌형 1인용 매트리스 4개 비치
2인실	더블침대 1개 비치, 1침대 2인 사용

** 4인실 침대형, 2인실은 취사가 불가능 합니다.**

- 예약 문의 : (041)934-7758
- 홈페이지 예약 : yonaresort.co.kr 또는 요나성당 검색

관평동본당, 목천본당 견진성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6월 23일(주일) 관평동성당(주임 정우석 신부)에서 본당 교우 68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6월 23일(주일) 목천성당(주임 김선태 신부)에서 본당 교우 30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천안 동부지구 청년연합 미사



천안 동부지구(지구장 오종진 신부) 청년연합 미사가 6월 21일(금) 천안신부동성당에서 있었다.

“축제의 모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시편 58,27) 라는 주제 성구로 봉헌한 연합 미사에 천안 동부지구 청년 뿐만 아니라 천안 서부지구, 당진지구의 청년들도 함께했다.

비아포르의 찬양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고, 미사 후에 지하 식당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천안 동부지구 청년연합회 임원들의 공연과 함께 천안 지역 부제와 신학생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축제의 모임에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홍산본당, 장항본당 본당의 날



홍산본당(주임 정준호 신부)은 6월 9일(주일) 본당의 날 행사를 했다. 교중 미사 후, 찬양 사도단 ‘만렐로’를 초청하여 생활 성가 공연을 관람하고, 미사도 함께 봉헌하며 풍요로운 전례를 거행했다.

장항본당(주임 허병도 신부)은 6월 23일(주일) 서천 국민체육관에서 본당 공동체 본당의 날 기념 행사를 했다. 공동체가 하나되어 주님께 드리는 미사로 시작하여 나눔의 식사(자연환경 살리기 일회용 자제)와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명랑운동회 시간을 가졌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권지훈 신부)는 6월 25일(화)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총대리 한정현 주교의 주례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했다.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 종신서원식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6월 22일(토) 대전 가르멜 여자수도원에서 종신서원식을 주례했다.

세종성프란치스코본당 말씀 피정



세종성프란치스코본당(주임 최견우 신부) 전신자 대상 말씀 피정이 6월 19일(수)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있었다.

최견우 신부는 루카 복음 16장 19-31절에 대해 역사적 배경과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던 다양한 직위의 사람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바리사이와 같이 자신만을 내세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종성요한본당, 세종성프란치스코본당, 세종성베드로본당 중고등부 연합 체육대회



6월 6일(목) 세종시의 3개 본당(세종성요한본당, 세종성프란치스코본당, 세종성베드로본당)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 체육대회를 했다.